

2007년 아르코예술극장이 선보이는 기획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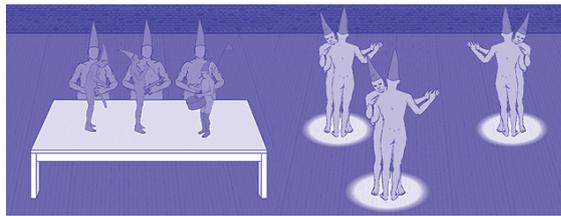
2007 아르코예술극장 기획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됐다. '기초공연예술 공공 지원'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삼는 아르코예술극장은, 극장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졸업시즌에 맞춰 추억의 명화 <졸업>을 연극으로 올리는 '졸업' 기획 프로그램, 2007년 아르코예술극장이 최고의 공연으로 꼽는 두 연극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로 구성된 'Best & First' 프로그램, <가무극 바리>·<백무동에 서(가제)>를 공연하는 'Made in 아르코예술극장 2007' 프로그램 등이 확정됐다.

문의: 아르코예술극장 조형준 02-760-4640

아르코미술관에서 기획한 'China Gate'전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 현대미술을 진단하는 'China Gate'전이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렸다. 현재 국제 미술계에는 '중국 현대미술 광풍'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한국 미술계 역시 중국 현대미술에 대해 과열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 유입된 정보는 한정적이고 부족해서, 중국 현대미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중국 현대미술의 '소개'에 초점을 맞춘 'China Gate'전을 마련했다. 중국 현지의 주요 미술평론가·화상·기획자들이 추천한 11명의 작가, 쑨푸룽·우썬·왕닝더·루어희이·우원웅·천페이·언마스크·린지은팅·리우썬·창신·리난난 등이 초대됐다.

문의: 아르코미술관 윤상진 02-760-4720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으로 새로 태어난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이 비전과 위상을 새로 설정하면서 명칭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ARKO Artistic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으로 바꿨다. 이번에 새로 정한 비전은 '무대공연예술 전문가의 육성 및 재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교육전문시설 담당', '공공성 대폭 확대' 등이며,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바꿨다는 것이 개칭 배경이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1986년 연수관이라는 이름으로 덕수궁 석조전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지난 20년 동안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문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한국현 02-760-4669

무용가 육완순, 아르코예술정보관에 평생 모은 자료 기증

한국 현대무용의 거목 육완순 선생(74, 현대무용가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 평생 모아온 공연 관련 자료를 아르코예술정보관에 기증했다.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가 1월 12일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 있었다. 평소 공연을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육완순 선생은 '가까운 후학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 주려 했으나, 누구에게나 개방된 아르코예술정보관에 자료를 맡겨 더 많은 무용인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료 기증의 뜻을 밝혔다. 기증자료는 공연비디오(안무 및 출연작품·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공연·해외단체 공연), 무용 관련 서적(저서 및 외서), 팸플릿 등 1,550여 점이다.

문의: 아르코예술정보관 02-525-3491

시각예술비평지 <볼> 4호 '정의'

시각예술비평지 <볼(Bol)> 4호(2006년 겨울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주제는 '정의(正義)'인데, 이는 인사미술공간이 참여했던 국제작가포럼 2006 '공공의 순간'의 일부인 '공공의 기대, 공공의 잠재력: 정의'에서 단초를 얻은 것이다. 기획의도는 '정의'를 정의(定義)하기보다는 논의의 틀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것. 정치·사회·경제·동양철학·미학·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과 작가들에게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여러 시각을 고루 실었다. <볼(Bol)>은 매 호 시각문화와 사회 전반의 흐름이 교차되는 주제를 선택하고, 국내외 전문 필자와 아티스트의 텍스트 및 지면작업을 통해 논의해나가고 있다. 또한 3월에 발간할 5호 '혈빛은 삶'에는, 카셀 도큐멘타의 매거진 프로젝트 '도큐멘타 12 매거진'을 위한 특별호가 실릴 예정이다. <볼(Bol)>은 국내외 주요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되며 해외에서도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5,000원(USD 15), 각 권 280-360페이지, 국영문 병기.

www.insaartspace.or.kr, 문의: 인사미술공간 02-760-4722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의 사물함(Curating Degree Zero)' 공개

전세계 17개국 90여 명 독립큐레이터들의 아카이브를 통해 현대미술 현장을 살펴보는 '큐레이터의 사물함'이 공개됐다(2006. 12. 20-2007. 2. 4, 인사미술공간). 전시기획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들의 모음인 '아카이브'를 통해 전시기획의 다양한 방법론을 토론·연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순회전시하다가 비유럽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으며 Sasa(44)+ 박미나가 이를 새롭게 분류·해석했다. 관객들은 카탈로그·도서·CD·DVD에서 기사모음·작가약력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료 1,000여 점을 통해, 90여 명의 큐레이터들이 현대미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바나비 드래블과 도로시 리히터가 1998년 처음 기획한 '큐레이터의 사물함' 프로젝트는, 심포지엄·출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프로젝트 제목은 롤랑 바르트의 《영도의 문학 Le Degre zero de l'écriture》을 따온 것. '전시기획'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여러 사항들을 관찰해서 전시기획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2003년부터 아카이브 형태로 발전해, 큐레이터들의 자료를 전 세계에 순회·공개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 '이수영 개인전 : 기록-증명'

'이수영 개인전 : 기록-증명'이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까지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렸다. 이수영은 우리 모두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서류로 기록되고 증명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 주민등록증에서부터 학생증·상장·고지서·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들의 아카이브를 구성했다. 또한 도서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증명서들을 분류하고, 2006년 9월 한 달 동안의 통화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전자시스템에 기록된 내용들과 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스스로 추적해 갔다. 기록과 증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1월 10일에는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와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정운수의 대담도 진행됐다.

200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이형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인 안소연(리움 삼성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2월 4일 로댕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몸을 발명하는 사이비 과학자 이형구를 제52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조앤 미첼 재단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형구는, 'The Objectuals'(2004년, 성곡미술관)와 'Animatus'(2006년, 아라리오 갤러리) 개인전을 두 차례 연 바 있다.

문의: 예술교류팀 황진수 02-760-457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만든 연극 <나비눈>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월 4일부터 6일까지 특별한 연극 한 편이 공연됐다.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예술현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참여한 연극 <나비눈>이 바로 그것. 웹진 아르코의 전 편집장 이자 <나비눈>을 쓴 신용목은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들의 상처받은 삶을 통해, 이 시대 예술의 지향점을 고민하고 싶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심재찬 사무처장이 직접 연출을 맡았고, 제작연기 등 전 과정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진행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 및 연극배우 오광록,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이 특별출연했다.

'2006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마다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7개 각 분야에서 우수 예술작품을 선정하여 '올해의 예술상'을 시상하고, 공연예술 분야 수상작품은 지역 축제 형태로 공연하고 있다. 이는 예술 창작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문화 소외 지역에 우수예술작품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4년에 시작하여 3회까지 시행한 '올해의 예술상'은, 2005년부터는 연중예 공연예술·시각예술·다원예술 분야의 현장심사를 해서 현장성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예심심사를 한다.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분야에서는 5 작품을,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4 작품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7개 분야에서 총 34의 작품이 선정됐다.

(관련 자료 및 홍보안내 홈페이지 : www.artsaward.or.kr)

'올해의 예술축제' 개막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와 올해의 예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승찬)가 주최하는 '올해의 예술축제' 개막공연이 1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올해의 예술축제'는 '2006 올해의 예술상' 공연예술 부문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것으로, 1월부터 3월 28일까지 17개 수상단체들이 총 45회 공연할 예정이다. 서울 개막공연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연은 무료로 개최되어, 지방민들에게 우수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개막공연은 전통예술 부문 수상자인 정희석(판소리)과 음악 부문 수상자인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앙성원 백병동 등 지난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펼치는 갈라 콘서트였다. 단가 <새로 쓴 송비어천가>를 비롯하여 야나체크의 <현을 위한 모음곡 작품 3>, 백병동의 <현을 위한 三章>, 슈만의 <첼로협주곡 a단조 Op.129> 등 예술상 수상작품 중심으로 연주됐다. 지방에서 열리는 무료공연 관람은 올해의 예술상 홈페이지 (www.artsawar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연문의: 02-3672-8091~3

2007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07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가 2006년 12월 29일 발표됐다. 총 5,302건이 신청되었으며, 금회 지원심의가 완료된 5,260건의 신청사업 중 1,237건(23.5%)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16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결정내용(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액)은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해당분야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문학 (02)7604-541, 시각예술 (02)7604-597, 음악 (02)7604-587, 무용 (02)7604-585, 연극 (02)7604-584, 전통예술 (02)7604-580, 다원예술·문화일반 (02)7604-583, 모든 분야의 국제교류사업 (02)7604-573/574

2007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극단 골목길' 등 공연예술 분야의 16개 단체를 선정하고, 1월 18일 선정 단체들과 구체적인 지원 및 사업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은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4개 분야의 전도유망한 단체들을 다년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고한다. 이는 전문 창작 역량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매년 이들 단체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성과를 심층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심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총 사업기간 3년 중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연간 단위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4분기 우수문학도서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도정일)는 2006년 4/4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 작품을 발표했다. 4/4분기 우수문학도서로는 구광렬의 《나 기꺼이 막치를 놓치리》와 시집 25종, 강영숙의 《리나》와 소설집 18종 19권, 김여운의 《사람을 만나다》와 아동청소년문학 11종, 김홍성의 《천 년 순정의 땅, 히말라야를 걷다》와 수필집 7종, 고봉준의 《반대자의 윤리》와 평론집 5종, 김태웅의 《반성-김태웅 회곡집2》와 회곡집 2종을 포함하여, 총 69종(70권)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0권의 책은 권당 2,000부(평론은 1,000부)씩 공공도서관교정시설복지시설대안학교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내 책을 직접 구입하기 힘든 소외계층이 우수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500여 곳에 보급하고 있다. 홈페이지(www.for-munhak.or.kr)에서 책이 필요한 시설의 신청을 꾸준히 받고 있다.

문의: 문학나눔사업추진위 사무국 김근 02-760-4690

2007 공연예술아카데미 제11기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나라 최초의 무대예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1992년부터 15년 동안 공연무대 예술 각 분야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온 공연예술아카데미(구 무대예술아카데미)에서 2007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최상의 교육 환경과 시설, 미래지향적인 커리큘럼 구성,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훌륭한 강사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전 의식과 열정을 가진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전공 분야 및 정원	무대장치 (10명), 무대조명(10명), 무대음향(10명), 무대의상 (5명), 연기·춤(15명), 공연비평·극작(5명), 연출·안무(10명)
지원 자격	대학 2년 이상 수학(전공 불문), 또는 해당 분야 현장 2년 이상 유경험자
교육 기간	2년 (4학기제 60주)-2007. 3. 12 개강
수강료	(2006년 대비 50%) 무대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의상 전공 : 700,000원 연기·춤, 공연비평·극작, 연출·안무 전공 : 600,000원
지원서 접수 기간	2007. 2. 1(목) - 2. 22(목),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홈페이지	http://edu.arko.or.kr
접수처	411-5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464-1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공연예술아카데미
문의전화	02-7604-654, 663

록의 대부 신중현, '더 라스트 콘서트- 내 기타는 잠들지 않는다'

한국 최초의 로커이자 한국 록의 산증인인 신중현(67)이 2006년 12월 17일 서울잠실체육관에서 은퇴공연을 했다. 이번 공연은 50여 년 음악생활을 공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는 공연에서 노래마다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이례적으로 22곡을 직접 노래했다. 새로운 기타주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세 아들 신대철·신윤철·신석철을 비롯하여, 전인권·인순이·신희범·김종서·윤도현밴드·마야 등이 참여하여 그의 마지막 공연을 장식했다.

평화를 위한 소통, '2006 동북아 평화음악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한·중·일 3국의 민속악기들이 만났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악기인 저대(북한)·고토(일본)·얼후(중국)와 서양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2006. 11. 24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6 동북아 평화음악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최로 열렸다. 이밖에도 소프라노 김희정, 국립창극단, 남도민요보존회의 공연이 이어졌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람스 스페셜 '브람스 관현악 시리즈1'



“교향곡의 아버지가 베토벤이라면, 브람스는 그 형쯤 됩니다. 올해는 브람스로 갑니다.” 정명훈 음악감독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6 베토벤 사이클'의 성공에 힘입어, 2007년 총 9회에 걸친 '브람스 스페셜'로 클래식 팬들을 찾아간다. '브람스 관현악 시리즈 1'이 1월 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 첫 번째 막을 올렸다.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교향곡 1번>·<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리스 연주자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했다.

국악사에 남을 공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3인의 가인'



판소리·정가·민요 각 분야의 '재야 인간문화재' 3인이 3월 15일 국립국악원의 기획공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3인의 가인' 무대에 함께 오른다. 현역 여류 명창 박초선·서현숙·남혜숙이 그 주인공이다. 전설적인 판소리 명창 박록주·김여란의 무류제자인 박초선은 <홍보가>와 <춘향가> 등을, 이름난 시조명인 유종구의 수제자인 서현숙은 <사설시조> 등을, 민요 명창 김옥심 무류제자인 남혜숙은 <관동팔경> 등을 부른다.

실내악의 깊이와 즐거움을 찾아서, '2007 부산국제음악제'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1회부터 화제를 모았던 부산국제음악제가 2007년 3회를 맞이했다.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해운대 그랜드호텔 등지에서 열렸다. 실내악의 중흥으로 부산 음악계를 되살리겠다는 음악제의 성격에 걸맞게, 올해도 세계적인 연주자 16명과 부산지역의 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내악 위주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음악감독인 백혜선·

최은식 부부의 초청으로, 첼리스트 정명화·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테니즈 메너와 올리비에 가르동·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아모알과 백주영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연주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축제기간에는 연주자들의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뮤직 아카데미'도 열렸다.

오페라·발레·합창의 어우러짐, '스페셜 갈라'

국립예술단체들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이 오페라 발레 합창이 어우러진 '스페셜 갈라' 공연을 선보인 것. 1월 19일, 2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진 '스페셜 갈라'는 2부로 나누어 총 7편 23곡의 작품을 풀어냈다. 1부에서는 테 마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카르멘>을 다양한 장르로 비교, 변주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과 마츠 에크의 발레 <카르멘>의 격돌이 관심을 모았다. 정은숙(국립오페라단)·박인자(국립발레단)·김명엽(국립합창단) 예술감독들이 공연 중간에 무대로 나와 해설을 맡기도 했다.

전미레 재즈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한국 재즈댄스의 선구자 전미레 재즈무용단이 2006년 11월 17일부터 3일간 서울패션아트홀 무대에 올랐다. 전미레 재즈무용단은 '재즈댄스'는 밤무대 쇼춤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한국에 재즈댄스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 공연은 전미레 재즈무용단 20년 세월의 결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공연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창작극 대본 당선작인 손현미의 <터닝(Turning)>이다.

오테석의 <맥베스>



극작가 겸 연출가 오테석이 2005년 <로미오와 줄리엣>에 이어, 셰익스피어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맥베스>를 선보였다(1. 10-1. 17 아르코예술극장). 전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색다른 문화의 상징을 더한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맥베스>는 전작과는

달리 원작에 충실했다. 셰익스피어 특유의 '언어유희의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테석 특유의 해석은 여전하다. 이 작품에서는 맥베스가 야망에 눈먼 영웅이 아니라, 마녀의 말에 끌려가는 평범하고 나약한 존재로 묘사된다. 정진각(맥베스)·황정민(해커드)·맥베스 부인(이수미) 등 극단 목화의 대표 배우들이 출연했다.

신명나는 놀음판, 명인 강준섭의 7일간의 마당놀이 광대

무형문화재 진도 다시래기 보유자인 강준섭(74)이 10년 만에 서울무대에 올라 광대놀이판을 벌였다. 덕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열흘간 들썩거렸다. 강준섭의 '심봉사' 연기는 영화 <왕의 남자> 장생(감우성) 연기의 표본이 되었을 정도로, 단연 최고로 꼽힌다. 이 날 공연에서 그는 <심청전> 중 가장 해학적인 <뽕피막>을 비롯하여, <놀보막>·<경문유희>등을 선보였다. 그외에도 김애선·손해천·정승희·김운태 등이 출연했다.

창무국제예술제, 산카이주쿠의 <가게미(KAGEMI)>

한국 창작춤의 선구자 창무회가 주관하는 창무국제예술제가 1월 19일부터 아르코예술극장과 포스트 극장에서 열흘간 열렸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창무국제예술제는 그동안 '부토 페스티벌(1회)', '유럽의 전위예술(2회)' 등의 테마를 내걸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용단체와 흐름을 국내에 소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창무회 창단 30주년을 맞아, '아시아 컨템퍼러리 댄스의 조류'·'한국 춤의 미래'·'세계 속의 창무', 이 세가지 주제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 4개국의 주요 무용단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일본 무용단 산카이주쿠의 <가게미(KAGEMI)>가 이번 예술제의 첫 작품. 2000년 파리시립극장에서 초연된 기념비적 작품으로, 세밀한 연꽃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춤사위가 인상적이다.

2007 세계발레스타 페스티벌 in SEOUL

러시아 키로프발레단·미국 아메리카발레시어터·영국 로열발레단 등 세계 명문발레단의 최정상급 무용스타 7쌍이 한 무대에 올랐다. 1월 25, 26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07 세계발레스타페스티벌 in SEOUL'에서다. 2000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발레스타페스티벌에서는 클래식 발레와 모던 발레의 교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도 <백조의 호수>, <지젤>부터 우크라이나의 민속무용 <고팍>까지 다양한 작품을 두루 선보였다. 이리나 드보로뱅크(아메리칸발레시어터)·로베르타 마르케츠(로열발레단)·이고르 젤렌스키(키로프발레단)·키로프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지연까지 세계적인 발레단의 주역들이 출연했다.

댄스시어터 온 10주년 공연 <다섯 번째 배역>

현대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홍승엽이 이끄는 댄스시어터 온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12월 30일 호암아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2005년 '프로들이 선정한 최고의 현대무용단'으로 꼽히기도 한 댄스시어터 온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 배역>은 안무가 홍승엽의 예술성이 가장 짙게 투영된 작품으로, 무용수 전원이 마음에 들 때만 무대에 올리겠다는 안무가의 고집 탓에 관객들이 쉽게 보기 힘든 작품으로 유명하다.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왜소해지고 소외되는 현대인을 다뤘다.

정체성의 충돌과 교섭, 서도호 개인전 '성찰 프로젝트'

서로 다른 문화와 공간의 충돌을 표현한 서도호의 성찰 프로젝트가 2006년 11월 2일부터 25일까지 선컨템포러리 화랑에서 열렸다. <추락한 별(Fallen Star)> 시리즈는 갑작스러운 회오리바람으로 살고 있던 집이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다는, 다소 엉뚱하지만 작가의 존재론적 고민이 담긴 설정에서 비롯된다. 서울에서 날아간 한옥이 미국의 벽돌집 옆구리를 들이받은 모습을 실물과 똑같이 축소제작한 작품을 전시했다. 그런 충돌 상태에서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드는 장면도 있다. 이 시리즈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에필로그>·<운명의 바람>·<새로운 시작>을 선보였다.

한성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특별전

17세기 조선 시대 한성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김원택과 그의 부인, 머느리들이 입었던 복식 118점이 전시된다. 2006년 1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충북대 박물관에 마련된 '한성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특별전'에서다. 2003년 충북 청주시 택지 개발을 하다가 출토된 380여 점의 유물 중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조선 후기 양반들의 의복 및 장례 문화와 같은 시대상은 물론, 각 옷마다 깃든 부인들의 생활 자세까지 엿볼 수 있다.

무형성의 화폭, 장 뒤뷔페 - 우를루프 정원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1901-1985)의 작품 235점이 2006년 1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됐다.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파리 뒤뷔페 재단의 협력과 프랑스 대사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2001년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뒤뷔페 탄생 100주년 기념전' 이후 최대 규모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인 1919년부터 죽기 직전인 1985년까지의 그림·조각·드로잉·석판화가 망라되어, 장 뒤뷔페 전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 작품은 활동시기 순대로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니키 드 생팔 전



프랑스 여류작가 니키 드 생팔(1930-2002)의 전시가 2006년 1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나>연작과 <스트라빈스키 분수>·<타로 공원> 등과 같은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은 물론, 흔히 접하기 어려운 5, 60년대 작품까지 마련됐다. 작품활동의 변모과정을 따라, '앗상블라주'·'사격회화'·'피물'·'나나'·'공공조각'으로 구획하여 전시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87년 전의 한국,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 키스전'

영국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가 1919년 한국에 머물며 그린 수채화와 판화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다(2006. 12. 7- 2. 11). 그녀는 금강산과 동대문과 같은 풍경을 비롯하여 농부·과부·아낙네·양반댁 규수·학자 등 다양한 군상과 설날 풍경·혼례·장례 등의 생활풍속까지 그림으로 기록했다. 전시에서는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 외에도 일본·중국·동북아를 주제로 한 작품도 함께 소개됐다.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전



©ADAGP, PARIS, 2006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1898-1967)의 국내 첫 회고전이 2006년 1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벨기에 왕립미술관과 마그리트 재단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120여 점, 사진 및 영상자료 150여 점이 망라됐다. 이번 전시에는 전성기의 작품뿐 아니라, 1927년 초창기 작품인 <보이지 않는 선수>를 비롯하여, 30년대에 틈틈이 작업한 극장 포스터·노동자 집회 포스터·벽지 디자인까지 선보인다.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전

2006년 1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가람미술관에서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전이 열린다. 인상파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콜리블랜드 미술관의 컬렉션 중 유화 56점, 드로잉 25점, 조각품 13점 등 총 94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전시는 ‘인상주의의 시대’·‘인상주의를 넘어서’·‘로댕과 로소’·‘피카소와 아방가르드’·‘북유럽과 영국의 모더니즘’, 이 5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다. 마네·모네·르누아르·드가·고갱·세잔·로댕·피카소·마티스·모딜리아니 등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망라되어 펼쳐진다.

류해운·류장복 회화전



일흔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2006년 첫 개인전을 연 ‘신인작가’ 류해운(79)과 그의 아들 화가 류장복(50)이 함께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쿤스트독에서 회화전을 열었다.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림을 그린 류해운과는 달리 류장복은 미술 정규코스를 밟고 열두 번의 개인전을 연 중견 화가다. 두 화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체의 장식적인 구도나 기교 없이 본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자유롭게 그려냈다는 점이다.

아시아 전통의 역동성, ‘오리엔탈 메타포’전



지금 세계 현대미술계는 아시아 열풍, 특히 한·중·일 작품의 열풍이 거세다. 이에 대해 ‘왜 아시아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시가 있다.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리고 있는 ‘오리엔탈 메타포’전이 바로 그것. 아시아에서 근대화로의 이행은 서구화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아시아 시각예술은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전시의 취지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전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간파됐던 ‘전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한·중·일 작가 11명의 회화영상설치를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이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살핀다. 전시 외에도 국제심포지엄작가와의 대화특별강연회도 열렸다.

탈제도권 문화·연구공간 ‘문지문화원 사이’

출판사 문학과지성사가 홍익대 근처에 복합 문화·연구공간을 마련했다. 2월 1일 공식 개원한 ‘문지문화원 사이’가 바로 그것. 문학과지성사는 현재 문화·인문학이 독자들과 괴리돼 있다면서, 이곳이 소통의 공간·교류의 광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지문화원 사이가 내세운 3대 중점 사업은, 첫째 각종 문화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 둘째 문화 전반에 걸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향한 실험, 셋째 다양한 학술적 탐구의 심화와 그 현실화다. 구체적으로는 ‘문학마당’·‘고전깊이읽기’·‘예술교실’ 등 30여 과목의 강좌들을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심포지엄·프로젝트·이벤트·전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 헤이리에 ‘윌리엄 모리스’ 박물관



출판사 한길사가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3월 개관을 목표로 ‘윌리엄 모리스 박물관’을 세우고 있다. 국내에 책 관련 박물관은 있지만, 특정 외국 작가의 박물관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예술공예운동을 주창한 윌리엄 모리스(1834-1896)는 자신의 독자적인 디자인 개념을 책에 적용해 새로운 스타일의 북디자인을 선보여 출판 디자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물관에는 김연호 한길사 사장이 그동안 수집해온 모리스 관련 희귀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루브르 해외분관? 논란 가속화



루브르 박물관이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애틀랜타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대규모 루브르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을 장기 대여할 예정이며, 특히 아부다비 박물관은 마치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처럼 '루브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프랑스 내

에서 이에 대해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루브르 박물관의 해외 작품 대여에 대한 인터넷 반대서명 운동 참여자가 벌써 2,500명이 넘었다. 반대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박물관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 400만 명의 코카콜라 도시인 애틀랜타의 하이 미술관(high museum)은 2006년 10월 14일부터 11개월간 루브르박물관 작품 185점을 전시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루브르 측은 1,300만 유로를 받게 된다. 물론 장기대여 방식이다. 라파엘의 <발다사레 카스티리오네>, 푸생의 <아르카디아 예고> 등 주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개관 이후 프랑스에서 대여한 작품 400여 점을 최대 2년간 전시할 예정이다. 관광 휴양 도시 아부다비에 루브르의 작품을 대여하여 받게 될 대가는 약 1억 유로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박물관들은 해외 확장 정책이나 상업적인 대여사업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대규모 자원 수입을 반대급부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해외 장기 대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박물관의 상업주의, 예술작품의 상품화를 부추킨다고 주장한다. 결국 돈을 대가로 영혼을 파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작품이 안전하게만 관리된다면 작품 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는 어디까지나 정신적·학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사와 관객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아부다비 전시의 경우 문화 차이로 성서화나 누드화와 같은 작품들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제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박물관 협회 마리야니 뒤크라이 국장과 루브르 박물관장 앙리 루아레트는 <르몽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애틀랜타가 상업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 도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흑인의 도시이자 마틴 루터 킹의 도시라고 반박했다. 또한 아부다비에 예술 작품을 대여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예술교류이며 결코 프랑스 박물관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이 자신만의 고유한 소장품을 확보하기 전까지 '루브르'라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명칭을 당분간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부다비는 루브르의 해외 분관이 아니며, 일단 프랑스 박물관의 노후를 바탕으로 설립하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 자체의 아부다비 박물관이 될 것이라 설명이다.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성서화나 누드화에 대한 어떤 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물관의 해외 진출·확장, 반대급부로서의 재정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술계의 큐레이터·고고학자·예술사학자·미술관 관계자·예술 애호가들이다. 이들은 돈·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미국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가올 일탈을 우려한다고 밝힌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예술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아부다비에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도 2012년 문을 연다는데, 이미 빌바오·베네치아·베를린 등 세계 각지에 미술관을 건립한 구겐하임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반대서명의 서명자가 1월 첫 주에 1,000명을, 둘째 주에 2,000명을 돌파했으나, 루브르 측과 문화부 장관의 입장은 확고하다. 박물관의 국제화·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경제적인 이득은 굳이 감출 것 없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예술 후원을 위한 메세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애틀랜타나 아부다비로부터의 수입 재원은 결국 다시 전액 프랑스 박물관 발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한편, 프랑스는 해외 진출 프로젝트로 2007년 말까지 퐁피두센터의 중국 상해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의 상품화·상업화에 대한 비판과 박물관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옹호 논쟁은 당분간 프랑스 문화예술계를 뜨겁게 달굴 듯하다.

바우하우스 80주년 기념 전시회 '모더니즘의 아이콘'



세계문화유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독일의 바우하우스가 데사우에서 문을 연 지 80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하여, 2006년 12월 2일부터 2007년 3월 11일까지 바우하우스에서 '모더니즘의 아이콘' 전시회가 열린다. 바우하우스는 1996년부터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원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전시는 10년에 걸친 개축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는 바우하우스 건축물 자체와 그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영상물·사진·녹음자료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바우하우스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모던 국제주의-세계문화'라는 토론회(12월 1일, 2일)와 바우하우스 80주년 페스티벌(12월 2일)도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예술 사학자들·건축가·철학자들 등이 모여 바우하우스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페스티벌에서는 유명 재즈밴드들이 2,30년대의 재즈·스윙·블루스 등을 연주하는 축하공연이 있었다.

마린스키 극장, '메가폴리스' 초연



2006년 11월 14일과 15일 마린스키 극장에서 '메가폴리스'가 초연됐다. '메가폴리스'는 단막 발레 세 작품들을 모아 구성된 공연으로, 안무는 돈베나 판두르스키가, 무대미술 및 의상은 미하일 세마킨이, 리브레토는 판두르스키와 세마킨이 공동으로, 음악감독 및 지휘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았다. 작품은 순서대로 <메타피지카>·<운순한 여자>·<봄의 제전> 관객들에게 익숙한 고전발레가 아니었음에도, 극장은 만석이었다.

첫 작품인 <메타피지카>는 전형적인 추상 발레였다. 프로코피예프 2번 심포니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인간 에너지 본질을 물리법칙의 원자 운동으로 형상화시켰다. 순수한 움직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발레로, 세 작품 중 가장 현대적이라는 평을 들었지만 관객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운순한 여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단편을 원작으로, 소외된 두 남녀를 어두운 색채로 그려냈다. 마침 도스토예프스키 185주년과 시기가 맞물린 데다가, 작품 자체의 호소력으로 가장 열띤 갈채를 받았다. 대중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라흐마니노프 2번 심포니와 드라마틱한 안무 스타일도 잘 어우러졌다. 안무가 보리스 에이프만의 색채가 엇보이기도 했지만, 세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 <봄의 제전>은 1913년 니진스키 안무로 초연된 이후로, 여러 버전으로 재안무되어온 작품이다.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이미 1997년에 예브게니 판필로프 안무의 <봄의 제전>을 초연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판두르스키는 곤충의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요정·곤충·거미를 주요 캐릭터로 배치하고, 거미의 폭력을 통해 희생양 테마를 형상화했다. 아쉬운 점은 판두르스키의 비전과 안무가 지나치게 단순해서 종종 소비에트 시절의 프로파간다 발레를 연상시켰다는 것이다. 불협화음 가득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은 안무와 움직임의 개념을 전복시킨 혁명적인 작품이다. 그에 비해 판두르스키는 너무나 안전한 길을 택했다. 곤충이라는 특이한 소재와 개성적인 무대미술만으로는 단선적인 리브레토와 단순한 안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번 '메가폴리스' 초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하일 세마킨의 무대미술과 의상이었다. 세마킨은 이미 호두까기 인형의 속편인 <마법의 호두>에서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메타피지카>에서는 원형과 곡선의 반복을 통해 에너지의 본질을 형상화했고, <운순한 여자>에서는 운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검은 관을 미니멀한 무대에 배치시켜 드라마틱한 안무를 강조했다. 반면 <봄의 제전>에서는 현란한 색채로 그려낸 동화적인 세계와 아기자기하면서도 섬세한 곤충 의상으로 시선을 끌었다.

세계적인 안무가 조지 발란신, 미하일 포킨, 포사이드 등의 작품은 이미 마린스키 극장의 단골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판두르스키의 이번 작품이 마린스키의 고정 레퍼토리로 편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초연의 주인공은 판두르스키가 아닌 세마킨이었다.

아랍권 최초 노벨상 수상작가 마흐푸즈, 사후 이집트서 첫 출간

아랍권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나킵 마흐푸즈(1911-2006)의 대표작 <게벨라위의 아이들>이 이집트에서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됐다. 게벨라위라는 선조에게서 나온 마을이 다시 작은 마을들로 나뉘는데, 이 소설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작품은 1967년 레바논에서 첫 출간됐고 1988년에는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그의 조국인 이집트에서 출간되지 못했다. 이집트 수니파 최고 종교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가 금서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창시자를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책 속에 등장하는 세 영웅이 이슬람 유대교·기독교 3대 유일교 창시자들을 빗대고 있다는 혐의였다.

마흐푸즈는 이 소설로 인해 1994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암살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 마흐푸즈는 이 작품이 이집트에서 출간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노환으로 2006년 8월 30일 타계했다. 마흐푸즈의 뜻에 따라 알-아즈하르 산하 이슬람연구소센터에 소속된 저명 학자인 아흐메드 카말 압둘 마그드가 서문을 쓰는 조건으로 출간이 이뤄졌다.

중국정부,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재정 거액 투입

문화유산 대국인 중국정부(세계문화유산 보유량 세계 3위)는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박물관(중국의 문화재·박물관 담당부서) 국장 단지상(單霽翔)은 2006년 12월 18일 전국 세계문화유산 업무회의에서, '11차 5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6년에 세계문화유산 보호로 투입된 중앙 재정은 약 1억 4,900만 위안이며, 이는 2005년에 대비해 약 1억 위안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10차 5년 계획' 기간에 세계문화유산지 112곳에 투입된 재정 총액은 1억 8900만 위안으로, '9차 5년 계획' 기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지방 정부도 세계문화유산보호에 더 많은 경비 지원을 제공하는 등, 관할지역 내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투입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시 지방정부가 투입한 세계문화유산 보호기금은 약 2억 위안이고, 이 중 장성에는 3,600만 위안, 톈탄에는 5,000만 위안, 이화원에는 7,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단지상은 문화유산 보호경비의 모집 경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문화유산보호기금의 설립, 국제기금조작과의 협력, 문화유산지 관광업 발전 덕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문화유산지 보호기금의 투입부족에 직면해 있다. 문화유산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고대 건축물이 많고, 경비 금액이 거대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지 보호관리경비의 투입과 실제적인 수요는 여전히 아주 큰 차이가 있다.